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수제 주류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주지사, 농민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및 홉 생산 증가를 촉진하는 법안에 서명

뉴욕 증류주 양조장을 위한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산 홉의 생산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증류주 농원 양조장을 위한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두 건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수제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비용을 줄이려는 이 행정부의 노력은 이 주 전 지역의 맥주 양조장과 증류주 양조장뿐만 아니라 사과주 양조장과 와인 양조장 성장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및 수제 주류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 새로운 법안은 뉴욕산 제품을 다양화하고 우리 농장들을 지원하며,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관광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관련 산업은 우리주의 경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역별 수제 주류 생산업체들은 뉴욕과 다른 지역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홉 생산을 확대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수제 음료 생산업체의 성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산업을 계속 지원하여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홉 생산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과수원과 포도원은 이 작물의 잠재력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000 달러의 판매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수원과 포도원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홉 또한 재배하기 시작한 후 수년 내에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법안(A.10097/S.8841)은 연간 매출 총액 요건을 완화하고, 농민들이 뉴욕주에서 새로운 홉 받을 경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홉을 생산하기 위해 최소한 7 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 농민들은 1년, 2년, 3년 또는 4년째 생산하는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이 법안은 또한 농민들이 처음 6년간 홉을 다시 심거나 생산을 확대하는 데 대하여 제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맥주 농원 양조장 면허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뉴욕산 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맥주 농원 양조장 수요 증가에 뉴욕의 농업 부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류주 농원 양조장 성장 지원

또한 Cuomo 주지사는 증류주 농원 양조장 면허가 있는 사업체가 일반인과 계약하여 해당인의 소비를 위한 고객 맞춤형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10128A/S.7793A)에 서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뉴욕의 와인 양조장은 주류 생산 면허가 없는 개인을 위해 고객 맞춤형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조치는 뉴욕주의 성장하고 있는 수제 주류 산업을 지원하고, Cuomo 주지사가 2012년 첫 번째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서밋(Beer, Wine Spirits and Cider Summit)을 주최한 이후 160 퍼센트 이상 증가한 농장 기반 제조업체의 수를 지원합니다. 뉴욕의 수제 주류 산업은 400 곳이 넘는 농원, 소규모, 레스토랑 맥주 양조장과 2012년 이후 104 곳이 추가된 132 곳의 증류주 농원 양조장을 비롯하여 1,000 곳이 넘는 생산업체를 확보하며 성장했습니다.

2011년 주지사의 취임 이후, 시행된 개선 사항에는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새로운 맥주 농원 양조장 및 사과주 농원 양조장 면허 마련, 제한적 규제 폐지, 면허 취득 소요 시간 단축, 뉴욕주의 옛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 이 새로운 법안은 구현된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Pamela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 자원에 관한 입법 위원회(Legislative Commission on Rural Resources)의 상원 위원장으로서, 저는 뉴욕산 맥주 재료를 우리 맥주 양조장에 공급하는 홉 재배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우리 정당의 방침에 따라 의원들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은 코넬 대학교(Cornell)의 홉과 보리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 결합하여, 우리 농부들이 홉을 성장시키고 계속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역 자원을 급성장하고 있는 뉴욕주의 수제 주류 산업에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의회 및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우리는 뉴욕의 농업, 식품, 음료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방문객들이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제품들을 사용해 보도록

권장했습니다.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해 주신 뉴욕주 상원과 하원의 제 동료 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David Vale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수제 주류 산업의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지사님과 협력하면서 주의회는 우리 맥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들이 진정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최신 조치로 우리의 증류주 농원 양조장들이 제품을 다양화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고객에 연결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 및 수제 주류 사업을 지원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arrie Woer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뉴욕주는 미국 홉 생산량의 90 퍼센트를 생산했습니다. 이 산업으로 이제 다시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맥주 농원 양조장의 수가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포도원 및 과수원과 동일한 과세 경감 정책을 농지인 홉 밭에 적용할 것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번영을 누리고, 보다 강해지고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향후 여러 세대 동안 기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농업 관련 산업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고 인정하면서,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obin Schimming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농장 기반의 주류 생산 업계에 더 큰 동등성을 허용할 것입니다. 주지사님이 이 법안에 서명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증류주 농원 양조장을 승인하여 생긴 능력인, 면허가 없는 개인을 위해 개인 또는 가족 사용을 위해서만 생산하는 고객 맞춤형 주류 생산 능력은 이전에 미개발 상태였던 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